

#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남인숙<sup>1</sup> · 안숙희<sup>2</sup>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sup>1</sup>, 부교수<sup>2</sup>

## Comparison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Nam, In Suk<sup>1</sup> · Ahn, Sukhee<sup>2</sup>

<sup>1</sup>Doctoral Student, <sup>2</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evel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urban areas and women living in rural areas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ir mental health. **Methods:** Two hundred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recruited from multicultural family-support centers located in Daejeon City and Chungcheong Province. From July, 2009 to January, 2010,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instruments were scales for acculturative stress, housewives life stress, support from spouse, and marital satisfaction. **Results:** Urban married immigrant women had lower level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higher levels of support from spouse and more positive marital satisfaction compared to rural women. Both groups reported similar levels of stress in life as a housewife. Factor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in both group were lower levels of acculturative and housewives life stress, higher levels of support from spouse, and living with parents-in-law. **Conclusion:** Rural married immigrant women may have more problems in adjusting to Korean culture and marriage compared to urban women. Therefore, to improv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adjust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development of nursing strategies according to area of residence is needed.

**Key Words:** Immigrants, Women, Marriage, Personal satisfaction, Stress, Social support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결혼 혼인건수가 1990년 4,710건과 비교할 때 2007년 38,491건으로 총 혼인건수 345,592건의 11.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외국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 619건

(동년 총 혼인건수의 0.2%)에서 2007년 31,180건(동년 총 혼인건수의 9.9%)으로 50배나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가운데는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문화적 차이,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기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 이혼 건수는 2007년 8,828건이었고 이는 2004년의 3,400건과 비교하였을 때 3년 사이 약 160% 증가

**주요어:** 이민자, 여성, 결혼, 만족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Address reprint requests to:** Ahn, Sukhee,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 Munhwa 1-dong, Jung-gu,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24, Fax: 82-42-584-8915, E-mail: sukheeahn@cn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남인숙의 석사학위논문 의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1년 5월 12일 / 1차심사완료일: 2011년 5월 22일, 2차심사완료일: 2011년 5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26일

하였다.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은 행복한 결혼을 추구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Kim, I. C., 2008).

국제결혼으로 인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적응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는 이주여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Lee, Y. H., 2007).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 갈등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이다(Kim, 2006). 즉 부부 위계에 대한 생각,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음식 문화, 친구와의 관계 등과 같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은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한국인 남편은 일정기간 동안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나 부인의 빠른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한다(Yoon, 2004). 그중 한국의 남성 중심적 가족구조가 이주여성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Hong, 2000), 아내 또는 며느리로서 일방적인 순종에 응해야 하고 존중받고 있지 않는다는 상실감도 나타날 수 있다(Moon, Kim, & Sim, 2009). 결국 결혼이주여성과의 배우자간의 상호 문화적 이해가 적고 결혼과 이주에 적응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지지가 없다는 점이 스트레스를 가중화시킨다(No, 2007). 뿐만 아니라 주부생활 속에서 가사일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문제, 건강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Moon et al., 2009).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경감시켜 주고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해주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므로, 이민자들에게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존재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Kim, M. L., 2004).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사회적 지원 중 배우자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스트레스 상황일지라도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우자 지지는 결혼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을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고 결혼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다(Kang, 2008). 또한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친밀한 가족관계는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Choi, 2006).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화 적응과 주부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중개 자원인 배우자 지지를 확인하여 이들이 한국에서 건강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이들 여성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No, 2007),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Choi, 2006; Jeon, 2008; Kim, 2007; Kim, 2009) 등 여성학적, 사회학적, 복지학적 관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간호학계에서는 최근 들어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Moon et al., 2009), 도시와 농촌 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Kim, H. J., 2008) 연구가 보고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농촌 지역에 비해 현대화 시설과 편리성 및 지리적 특성 등의 이유로(Yang, 2006)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및 결혼만족도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주환경이 서로 다른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수준과 영향요인을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와 결혼 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거주 지역 특성에 알맞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과 같은 여성건강 간호 전략을 세우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를 비교한다.
-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간 관계를 비교한다.
-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주부생활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로부터의 지지, 결혼만족도를 도시와 농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비교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편의 모집한 200명(도시 100명, 농촌 100명)의 여성이

다. 연구자는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시 그리고 충북과 충남 지역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대전/공주 이주여성센터, 옥천군 보건소, 금산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협조를 구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이상인 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자는 기관의 도움으로 소개받은 여성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의 자율성, 개인의 정보 비밀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한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정확성을 위하여 대상자가 문장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연구자가 추가설명을 통해 1:1 면접으로 완성하였다.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40분 정도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총 220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정리 중 자료가 불충분한 20명의 자료를 제외한 2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에서 연구 승인을(심의번호: 20090421) 받은 후 시작하였고 자료수집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 3. 연구도구

#### 1)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부생활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No (2007)가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하위영역별로는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 등 7개 영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No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주부생활 스트레스는 Moon 등(2009)이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에서 사용한 '주부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영역은 배우자, 자녀, 시부모, 친구, 경제, 건강, 가사 등 7개 영역,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로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0, 보통정도 경험한다=1, 자주 경험한다=2로 3점 척도로 구성되고 점수범위는 0~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oon 등(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이었다.

#### 2) 배우자로부터의 지지

배우자 지지는 Kim, H. J. (2008)이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에서 사용한 '배우자의 보살핌정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부인이 남편에게 받기를 원하는 물리적, 심리적, 인간관계적, 정보적 도움 등과 관계되는 내용 12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H. J. (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와 Bowden (1981)이 개발한 것을 Kang (2008)이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에서 사용한 결혼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8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개별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의해 평가되며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결혼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사회심리적 동질감, 결혼생활의 갈등요인, 부부관계의 불만 요인, 부부관계의 합리적 태도,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 (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는  $\chi^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 두 집단의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집단별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집단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준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 비교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나이 분포는 '30~39세'

가 44.0%,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29세 이하'가 57.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배우자 연령은 '40~49'세인 경우가 도시 54.0%, 농촌 61.0%였다.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도시의 경우 고졸이 42.0%인 반면, 농촌의 경우 중졸 이하가 54.0%로 많았고 배우자의 학력은 도시(51.0%)와 농촌(51.0%) 모두 고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종교는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통일교였다. 결혼기간은 도시의 경우 분포가 고루 나타났으나 농촌의 경우 3년 이상~5년 미만인 67.0%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가족형태에서 도시는 주로 '부부+자녀'가 64.0%인 반면 농촌은 '시부모+부부+자녀'가 74.0%로 많았다. 직업이 있는 여성은 도시 43.0%, 농촌 25.0%였고, 배우자는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었다. 도시의 경우 빌라 거주가 46.0%인 반면 농촌은 단독 주택 거주가 71.0%로 나타났다. 도시는 중국출신 이주여성이 37.0%, 농촌은 베트남 출신이 51.0%를 차지하였고, 한국어 능력 수준은 도시의 경우 '보통'이 44.0%인 반면 농촌은 '별로 못함'이 47.0%로 나타났다.

비교결과,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농촌거주 여성에 비해 나이가 많고( $\chi^2=4.93, p<.001$ ), 학력이 높고( $\chi^2=27.12, p<.001$ ), 배우자 학력도 높고( $\chi^2=19.29, p<.001$ ), 결혼기간도 길었다( $\chi^2=19.04, p<.001$ ). 또한 도시 거주 결혼이주 여성은 농촌여성에 비해 핵가족이 많고( $\chi^2=59.20, p<.001$ ), 직장생활자가 많았고( $\chi^2=7.22, p=.007$ ), 가족 월소득이 높았고( $\chi^2=39.20, p<.001$ ), 빌라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chi^2=42.37, p<.001$ ), 한국어 능력이 높았다( $\chi^2=16.44, p<.001$ ) (Table 1).

## 2.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 비교

결혼이주여성의 주부생활 스트레스는 도시거주 여성의 경우  $13.91 \pm 11.59$ 점이고, 농촌여성의 경우에는  $13.21 \pm 7.14$ 점으로 나타나 그 정도가 유사하였다. 주부생활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경제문제와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도시여성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와 스트레스 순이었고, 농촌 여성의 경우 배우자, 자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비교결과, 도시여성은 농촌여성에 비해 건강문제( $t=-5.09, p<.001$ )와 친구와의 관계( $t=-2.45, p=.015$ )에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반면 농촌 여성은 도시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t=1.99, p=.48$ )를 많이 갖고 있었다.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평균  $91.59 \pm 23.12$ 점, 농촌 거주 이주여성은  $108.00 \pm 16.31$ 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5.80, p<.001$ ).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지각된 차별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각된 적대감, 향수병 순이었다. 죄책감을 제외하고 지각된 차별감( $t=5.24, p<.001$ ), 향수병( $t=4.01, p<.001$ ), 지각된 적대감( $t=5.58, p<.001$ ), 두려움( $t=6.34, p<.001$ ), 문화충격( $t=4.69, p<.001$ ), 기타 영역( $t=5.74,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도시 여성에 비해 위 영역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배우자로부터의 지지 정도를 비교하면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9.62 \pm 6.52$ 점, 농촌 여성의 경우  $23.03 \pm 6.52$ 점으로 나타나 도시 여성이 농촌 여성보다 배우자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 $t=-6.08, p<.001$ ).

결혼만족도는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168.19 \pm 24.63$ 점, 농촌 여성의 경우  $157.21 \pm 18.51$ 점으로 나타나 도시 여성이 농촌 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t=-3.56, p<.001$ ). 하위영역에서는 사회적 동질감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관계의 갈등요인,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순이었다. 집단 비교 결과 사회심리적 동질감( $t=-3.47, p=.001$ ) 부부관계의 갈등요인( $t=-2.50, p=.013$ ),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t=-5.57, p<.001$ ), 부부관계의 합리적 태도( $t=-4.58, p<.001$ ),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t=-2.24, p=.026$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농촌 여성에 비해 위 영역에 대한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 3. 도시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에서는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 $r=.76, p<.001$ )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배우자 지지와 주부생활 스트레스( $r=-.22, p=.031$ ), 배우자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r=-.50, p<.001$ ), 결혼만족도와 주부생활 스트레스( $r=-.35, p<.001$ ), 문화적응 스트레스( $r=-.53, p<.001$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부생활 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에서도 도시거주 여성에서와 같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 $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

(N=200)

Variables	Categories	Women in urban	Women in rural	$\chi^2$ or t	p
		(n=100) n (%)	(n=100) n (%)		
Age (year)	≤ 29	21 (21.0)	57 (57.0)	4.93	< .001
	30~39	44 (44.0)	30 (30.0)		
	40~49	30 (30.0)	8 (8.0)		
	≥ 50	5 (5.0)	5 (5.0)		
Spouse's age (year)	≤ 39	24 (24.0)	24 (24.0)	0.76	.449
	40~49	54 (54.0)	61 (61.0)		
	≥ 50	22 (22.0)	15 (15.0)		
Education	≤ Middle school	21 (21.0)	54 (54.0)	27.12	< .001
	High school	42 (42.0)	33 (33.0)		
	≥ Junior college	37 (37.0)	13 (13.0)		
Spouse's education	≤ Middle school	22 (22.0)	43 (43.0)	19.29	< .001
	High school	52 (52.0)	51 (51.0)		
	≥ Junior college	26 (26.0)	6 (6.0)		
Religion	None	47 (47.0)	62 (62.0)	12.47	.014
	Christian	22 (22.0)	18 (18.0)		
	Unification church	31 (31.0)	20 (20.0)		
Spouse's religion	None	68 (68.0)	77 (77.0)	12.02	.017
	Christian	15 (15.0)	11 (11.0)		
	Unification church	17 (17.0)	12 (12.0)		
Duration for marriage (year)	< 5	37 (37.0)	67 (67.0)	19.04	< .001
	5~10	33 (33.0)	21 (21.0)		
	> 10	30 (30.0)	12 (12.0)		
Type of family	Couples	12 (12.0)	1 (1.0)	59.20	< .001
	Couples + children	64 (64.0)	23 (23.0)		
	Parents-in-law + couples + children	22 (22.0)	74 (74.0)		
	Parents-in-law+couples	2 (2.0)	2 (2.0)		
Job	Yes	43 (43.0)	25 (25.0)	7.22	.007
	No	57 (57.0)	75 (75.0)		
Spouse's job	Yes	92 (92.0)	89 (89.0)	0.52	.469
	No	8 (8.0)	11 (11.0)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 100	10 (10.0)	35 (35.0)	39.20	< .001
	101~200	49 (49.0)	58 (58.0)		
	201~400	36 (36.0)	7 (7.0)		
	≥ 401	5 (5.0)	0 (0.0)		
Housing	Apartment	29 (29.0)	7 (7.0)	42.37	< .001
	Villa	46 (46.0)	22 (22.0)		
	Single house	25 (25.0)	71 (71.0)		
Having children	Yes	85 (85.0)	98 (98.0)	10.87	.001
	No	15 (15.0)	2 (2.0)		
Nationality	China	37 (37.0)	6 (6.0)	46.93	< .001
	Philippine	20 (20.0)	21 (21.0)		
	Vietnam	13 (13.0)	51 (51.0)		
	Japan	20 (20.0)	14 (14.0)		
	Thailand	10 (10.0)	8 (8.0)		
Proficiency for Korean language	Mostly fluent	29 (29.0)	9 (9.0)	16.44	.001
	So so	44 (44.0)	44 (44.0)		
	Very poor	27 (27.0)	47 (47.0)		



**Table 2.** Comparison of Housewives Life Stress, Acculturative Stress, Support from Spouse,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N=200)

Variables	Categories	Women in urban	Women in rural	t	p
		(n=100)	(n=100)		
		M±SD	M±SD		
Housewives life stress	Relationship with spouse	2.14±1.83	2.15±1.09	0.05	.963
	Relationship with children	1.59±2.13	1.75±2.12	0.53	.595
	Relationship with parents-in-law	1.27±2.06	1.17±1.36	-0.41	.686
	Relationship with friends	0.47±1.32	0.11±0.65	-2.45	.015
	Economy issues	3.14±2.73	3.73±1.69	1.84	.068
	Health issues	2.44±2.95	0.76±1.48	-5.09	<.001
	Housework issues	2.86±2.53	3.54±2.30	1.99	.048
	Total	13.91±11.59	13.21±7.14	-0.51	.608
Acculturative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18.02±4.91	21.26±3.76	5.24	<.001
	Home sickness	11.39±3.26	12.96±2.18	4.01	<.001
	Perceived Hate	13.84±4.32	16.89±3.35	5.58	<.001
	Fear	7.12±2.36	9.04±1.90	6.34	<.001
	Culture shock	7.92±2.36	9.26±1.62	4.69	<.001
	Guilt	4.73±1.61	4.83±1.18	0.50	.617
	Nonspecific	28.57±7.51	33.76±5.04	5.74	<.001
	Total	91.59±23.12	108.00±16.31	5.80	<.001
Support from spouse	Total	29.62±6.52	23.03±6.52	-6.08	<.001
Marital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married life	30.62±37.46	30.48±3.60	-0.23	.820
	Psychosocial identity	37.46±6.85	34.46±5.27	-3.47	.001
	Factors of marital conflict	34.21±6.20	32.22±4.98	-2.50	.013
	Factors of marital dissatisfaction	26.17±4.21	23.20±3.26	-5.57	<.001
	Rational attitude of the couple relationship	21.99±3.91	19.78±2.82	-4.58	<.001
	Recognition of marriage	17.74±2.32	17.07±1.90	-2.24	.026
	Total	168.19±24.63	157.21±18.51	-3.56	<.001

.59,  $p < .001$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주부생활 스트레스( $r = .32$ ,  $p = .001$ )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주부생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r = -.46$ ,  $p < .001$ ) 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r = -.61$ ,  $p < .001$ ), 배우자 지지와 주부생활 스트레스( $r = -.33$ ,  $p = .001$ ), 배우자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r = -.62$ ,  $p < .001$ )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은 주부생활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 그리고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Table 3).

#### 4.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에서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10개의 독립변수들로 구성된 회귀식은 유의하였고( $F = 17.20$ ,  $p < .001$ ), 모델의 설명력(수정된  $R^2$ )은 62.5%였다.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에서는 주부생활 스트레스( $t =$

$-3.16$ ,  $p = .002$ ), 문화적응 스트레스( $t = -2.08$ ,  $p = .041$ ), 배우자 지지( $t = 8.54$ ,  $p < .001$ ), 시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 $t = 2.02$ ,  $p = .046$ )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배우자 지지( $\beta = .65$ ), 주부생활 스트레스( $\beta = -.22$ ), 문화적응 스트레스( $\beta = -.18$ ), 가족형태( $\beta = .14$ ) 순이었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회귀식이 유의하였고( $F = 10.12$ ,  $p < .001$ ), 모델의 설명력은 47.9%로 나타났다.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에서도 주부생활 스트레스( $t = -3.85$ ,  $p < .001$ ), 문화적응 스트레스( $t = -3.20$ ,  $p = .002$ ), 배우자 지지( $t = 2.74$ ,  $p = .007$ ), 시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 $t = 2.08$ ,  $p = .040$ )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설명변수였다. 중요도는 주부생활 스트레스( $\beta = -.32$ ), 문화적응 스트레스( $\beta = -.31$ ), 배우자 지지( $\beta = .27$ ), 가족형태( $\beta = .18$ ) 순이었다. 즉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모두 시부모와 동거할 때, 주부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Table 3.** Relationships among Housewives Life Stress, Acculturative Stress, Support from Spous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N=200)

Variables	Women in urban (n=100)			Women in rural (n=100)		
	Marital satisfaction	Housewives life stress	Acculturative stress	Marital satisfaction	Housewives life stress	Acculturative stress
Housewives life stress	-.35 (< .001)			-.46 (< .001)		
Acculturative stress	-.53 (< .001)	.06 (.543)		-.61 (< .001)	.32 (.001)	
Support from spouse	.76 (< .001)	-.22 (.031)	-.50 (< .001)	.59 (< .001)	-.33 (.001)	-.62 (< .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N=200)

Variables	Women in urban				Women in rural			
	B	$\beta$	t	p	B	$\beta$	t	p
Education Level (1=high school and above)	2.91	.05	0.64	.526	-5.09	-.14	-1.63	.107
Spouse's education (1=high school and above)	-4.77	-.08	-1.16	.249	-1.64	-.04	-0.60	.551
Duration since marriage	0.02	.04	0.43	.669	0.04	.11	1.16	.248
Monthly family income (1=2,000,000 and above)	-0.70	-.01	-0.20	.844	2.93	.04	0.52	.602
Living with parents-in-law (1=yes)	7.89	.14	2.02	.046	7.67	.18	2.08	.040
Korean language proficiency (1=good)	-2.89	-.05	-0.74	.459	-0.44	-.01	-0.14	.891
Having children (1=yes)	-4.36	-.06	-0.89	.376	8.39	.06	0.79	.431
Housewives life stress	-0.46	-.22	-3.16	.002	-0.82	-.32	-3.85	< .001
Acculturative stress	-0.19	-.18	-2.08	.041	-0.35	-.31	-3.20	.002
Support from spouse	1.86	.65	8.54	< .001	0.76	.27	2.74	.007
Adj. R <sup>2</sup> =.625, F=17.20, p<.001				Adj. R <sup>2</sup> =.479, F=10.12, p<.001				

## 논 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부부의 희망과 동시에 가족생활의 지향점으로 건강한 삶의 안정적 유지 및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가족구성원이 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증가하는 국제결혼 이혼양상은 다문화가정의 해체는 물론이고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중요한 간호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도시 여성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아마도 농촌이주여성들은 도시 지역에 비해 교통시설 부족과 취약한 지리적 특성 등의 이유로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적응 과정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Yang, 2006).

본 연구의 도시,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주부생활 스트레스 점수는 유사하였고, 그 수준은 동일도구로 측정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점수와 비슷하

였다(Moon, Kim, & Sim, 2009). 주부생활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는 도시와 농촌거주 여성 모두 경제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베트남과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온 여성들이 가계곤란을 주 이유로 한국 남자와 결혼을 결정하여 이주하는 반면(Thanh, 2005),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57% 가량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제수준을 보이기 때문에(Lee, Y. H., 2007)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가장 큰 생활 문제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준의 보장과 같은 다양한 사회복지 차원의 물질적인 도움과 대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가사일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의 경우 외국여성이 결혼한 후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길러주며 시부모를 잘 모실 것을 바라며(Kim, H. J., 2008),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 날씨가 문화, 등에 적응하기보다 임신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Thanh, 2005). 따라서 도시든 농촌이든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역할은 가정주부로서 생활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 시댁 가족과의 교제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주부생활 스트레스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거주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문제와 가사일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도시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농업의 특성상 일 년간의 노동이 투자된 후에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농촌에서 주부가 가사일 뿐 아니라 농사 일 돕기에도 노동인력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 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 증가로 생각된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배우자의 지지 정도는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 H. J.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국문화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전통적인 성격이 강하고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시하는 가족주의적 사고방식과 엄격한 위계서열로 인한 남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여 부부관계보다는 부자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가족 내에서 남성이 권위를 가지고 여성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한국남성인 배우자가 아내에게 지지를 제공하기보다는 외국여성의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기 때문이다(Kim, H. J., 2008). 결혼만족도 역시 농촌 거주 이주여성이 도시보다 낮았는데 이는 중소도시보다 농촌 이주여성에서 부부 갈등이 높았다는 보고(Kim, 2006)와 일치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농촌 지역의 특수성과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 시부모와의 관계, 노인

부양, 의료기관 이용 부족과 잦은 병 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5). 이러한 상황들이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보다 농촌 거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은 거주 형태에 관계없이 주부생활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이는 도시와 농촌 거주 이주여성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부 갈등이 적은 연구(Kim, 2006),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주부생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Moon, Kim, & Sim, 2009)와 일치한다.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 모두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배우자의 협력, 이해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Lee, 2009)와 일치하였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배우자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고 배우자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원이기 때문에 배우자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부족한 지원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지지는 또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이었고 특히 도시거주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Kang, 2008; Kim, I. C., 2008; Kim, Kim, & Ok, 2010), 배우자가 부인에 대한 전념도가 높고,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고, 배우자와 여가문화생활을 공유할수록(Jeon, 2008; Kim, 2009; Kim, Y. S., 2007)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던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배우자는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Kim, 2006).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아내의 모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부부간 상호 신뢰와 이해가 증진되어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두 집단 모두 시부모와 동거할 때로 나타났다. 이는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함이 결혼만족도가 높았던 연구(Kim,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가가 양성 평등 문화속에서 자랐을 때, 이들은 한국의 남성 중심적이고 시부모님과 외국인 며느리의 “명령-순종” 관계에서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된다(Chungnam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또한 이주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가사노동과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은 아내로서, 주부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다중 역할에 노출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뿐 아니라 주부생활 스트레스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때 주부생활과 관련하여 이주여성에게 생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함께 거주하는 시부모이다(Gong & Ok, 201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시부모와 동거를 통해 시부모로부터 물질적 및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이들의 스트레스는 경감되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부모와의 동거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도모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중요 요인이므로, 대상자의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에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남편들의 자조모임을, 또한 남편과 시부모 교육 및 간담회를 열어 다문화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도모하고 밝은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Han, 2011).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지역 결혼이주여성을 편의모집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안녕과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하는 중재의 방향을 확인한 점이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이 동남아인 경우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을 많이 하고,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획득하는 비율이 높았고(Lee, Seol, & Cho, 2006)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충분한 음식섭취를 하지 못해 저체중과 같은 신체건강문제를 경험하였다(Hwang, Lee, Kim, Chung, & Kim, 2010). 따라서 이주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 측면을 고려할 때에 대상자의 국적도 고려해야 할 변수라 생각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신혼기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거주 지역의 특성과 국적을 고려하여 상호간 문화 이해, 결혼생활의 이해, 부부간의 대화기술과 같은 결혼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차원의 다문화가정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결혼 직후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의 부모되기 과정을 부부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출산기 건강간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도 요구된다. 추후 연구

에서는 이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 결론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및 결혼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 각 100명을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편의모집 하였다. 연구결과,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고 배우자 지지가 많았고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주부생활 스트레스 수준은 서로 유사하였다.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 모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주부생활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시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일 때로 나타났다.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 지지였고, 다음으로 주부생활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이었다. 반면 농촌 여성의 경우 주부생활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문화적응 과정에서 뿐 아니라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농촌 거주 여성의 경우 언어 표출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커서 문화적응에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가사부담과 자녀양육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시부모와의 동거가 이들의 문화적응과 주부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부모를 포함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교육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보건, 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이 결혼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기를 대비한 여성건강간호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음을 고려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간호전략을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Choi, K. S. (2006). *A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centering Daegu & Kyungbuk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Chungnam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Multicultural Family-Support Center Workshop (n.d.)*. Retrieved July 2, 2010, from <http://www.cwpdi.re.kr>
- Gong, M. H., & Ok, S. Z. (2010). Effects of marriage role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with immigrant couples-couples of Vietnam, Philippine women and Korean men living in Busan-. *Journal of Family and Culture*, 22(2), 95-120.
- Han, J. H. (2011). *Jeonnam,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Retrieved February 20, 2011, from <http://www.heraldtimes.co.kr/news/articleView.html?dxno=216>
- Hong, K. H. (2000). *The gender politics of migration viewed through marriages between Chosun-jock(Korean-Chinese) women and Korean 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wang, J. Y., Lee, S. E., Kim, S. H., Chung, H. W., & Kim, W. Y. (2010). Psychological distress is associated with inadequate dietary intake i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10(5), 779-785.
- Jeon, B. H. (2008). *A study of immigrant women's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ang, S. J. (2008).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d.). *Marriage rate for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Population movement study*. Retrieved November 28, 2008, from <http://kosis.nso.go.kr>
- Kim, H. J. (2008). A study of spousal support, the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1), 5-11.
- Kim, H. S., Kim, H. J., & Ok, Z. H. (2010). Relationships of immigrants'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Family and Culture*, 22(3), 97-127.
- Kim, I. C. (2008).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 Kim, M. L. (2004, October). *The adjustment stress and the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on the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 Kim, O. N.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s women. *Journal of Family Culture*, 18(3), 63-106.
- Kim, S. H. (2009). *A study of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men, and factors on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Kim, Y. S. (2007). A study on happiness with immigrant women married in Seoul.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1, 217-252.
- Lee, E. H. (2009). *Ecological study of acculturative stress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Y. H. (2007).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Focusing on social ca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Yongin.
- Lee, Y. J., Seol, D. H., & Cho, S. N. (2006). International marriages in South Korea: The significance of nationality and ethnic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3(2), 165-182.
- Moon, S. S., Kim, C. H., & Sim, M. G. (2009).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needs for help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1), 101-112.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5). Result of survey about living status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and counterplan of MHWFA. Author: Seoul.
- No, H. N. (2007). *A study for cultural adaptation of Chinese immigrant women -The type of cultural adaptation and focused on perceived social support with immigran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Roach, A. J., Frazier, L. O., & Bowden, S. T.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 537-546.
- Thanh, H. M. (2005). *The study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 and Vietnam since 1992*.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Yang, S. M. (2006). Adjustment and an aspect of family life of the rural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focusing on the Chinese (Korea tribe), Japanese, and Philippine immigrant woman and their's husband. *Journal of Rural Community*, 6(2), 151-179.
- Yoon, H. S. (2004). Conflicts and adjustment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men: Philippine wives in rural Korea. *Journal of Local History Culture*, 8(2), 299-339.